

市, '2000년 전 마한' 신창동 유적지 96% 매입

(11만8908㎡)

철기~삼국시대 농경유적 출토
광주시, 전서관 등 조성 계획
20년간 발굴... 고고학 가치 확인

국가사적인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부지 매입률이 20년 만에 96%대를 넘어섰다. 광주시가 농경복합유적인 이곳을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에 나선 지 20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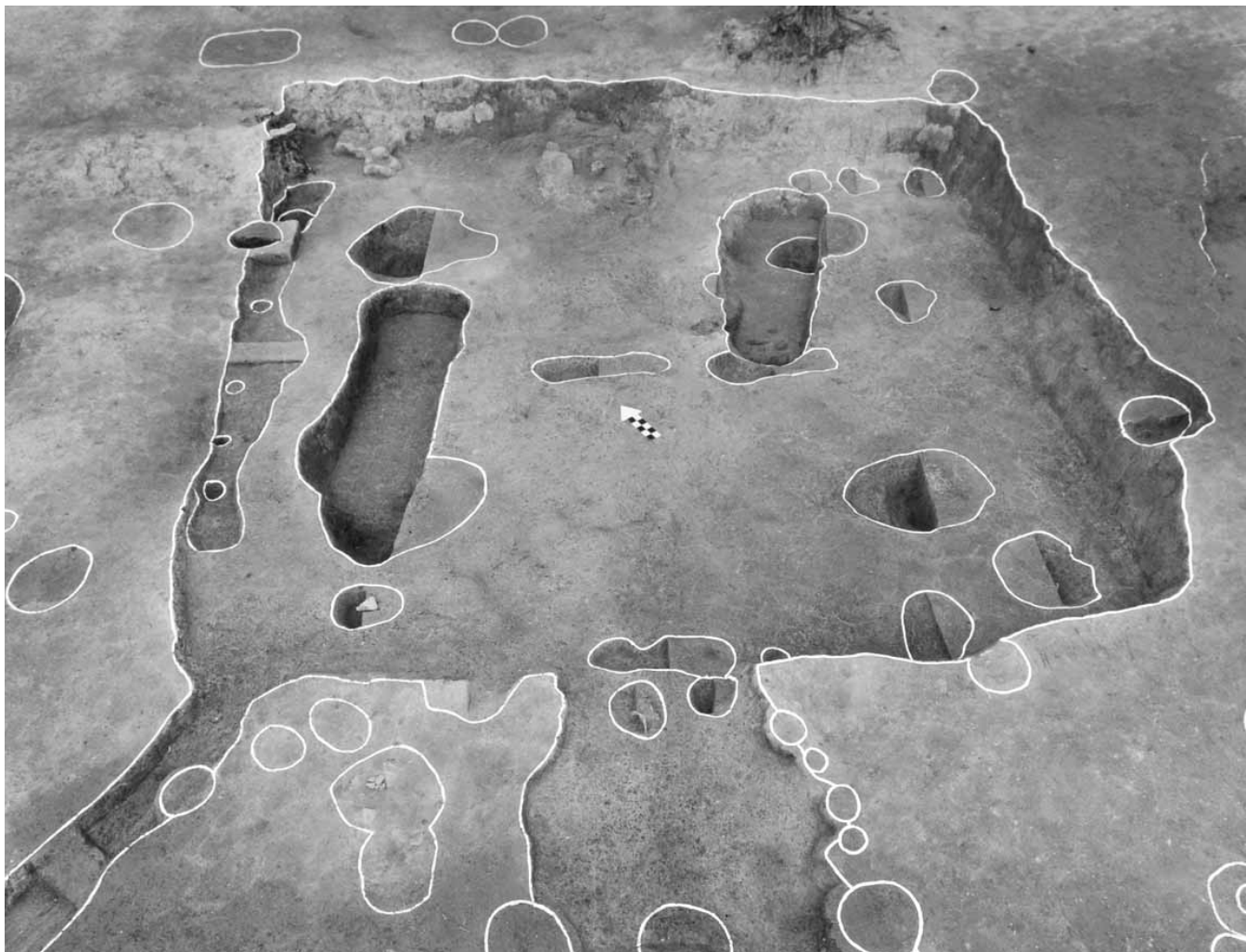
신창동 유적지에서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현악기, 천 조각 등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최초', '최고', '최대'를 자랑해 이른바 '3최' 유적이자, 고대의 타임캡슐임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밭이 발굴돼 또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5호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사유지 12만3881㎡)에 대한 부지매입에 나서 올 현재까지 매입목표 토지의 95.99%(11만8908㎡)를 사들였다. 지난 1995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 점을 감안 하면 무려 20년이 걸린 셈이다.

신창동 유적지는 2000년 전 영산강변 고대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기원전 1세기 무렵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대대위 복합유적이다.

시는 이곳에 유물전시관을 세우는 등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유적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소유주들이 가격차를 이유로 땅을 파는 것을 꺼려 부지매입 완료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단일유적으로서는 드물게 20여년 넘게 발굴(18차 발굴)이 진행중인 신창동 유적지에서는 술안 문화재가 쏟아졌다. 탄화미(炭化米·불에 탔거나, 지층 안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 있는 쌀), 수레바퀴, 비단, 가야금 등 유물이 출토됐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집터.

(광주시 제공)

신창동에서 발굴된 마차와 관련된 바퀴통, 바퀴살은 역사적 기록을 뒤집는 유물이다. 수레바퀴의 크기는 두 팔을 벌려야 겨우 닿는 지름 1m60cm에 달했다. 이는 삼국지 동이전에 언급된 "마한은 소와 말을 탈 줄 모르며 장래에 써버린다"라는 기록을 뒤집는 것이었다.

지난 1997년 출토된 천 조각(너비 2cm·길이 3cm)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으로,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고대의 베를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방

직 도구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 의 신발골, 철기, 목검, 각종 토기들도 다수 발굴됐다.

지난 2010년 신창동에서 발굴된 쌍파비도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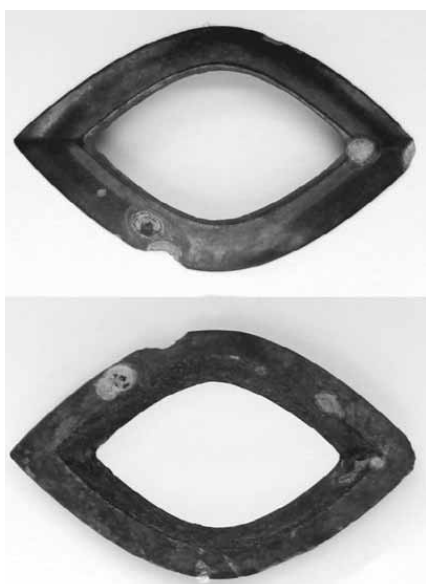
신창동 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갈집 장식품 등도 출토됐다. 지난해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은 "이곳을 발굴조사한 결과 쇠갈 부속구 일종인

'검초금구'와 5세기 삼국시대 발 유적이 영산강 유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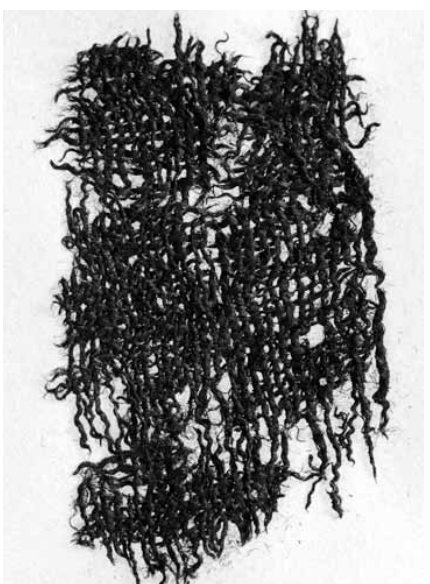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철기시대 벼를 재배했던 밭이 발굴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창동 유적 16차 발굴조사 결과 저습지(低濕地·땅이 낮고 축축한 곳)와 동일한 시기(초기 철기시대)에 조성된 경작 유구(遺構·구조물과 조형의 흔적)가 발굴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대 현악기



갈집 장식



비단 조각



빗



효광중학교 학생들이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찾아가는 안전교실'

효광중 전교생 대상 다양한 이론·체험교육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정용식)과 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는 최근 효광중학교 전교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실이 광주에서는 최초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교교만을 방문해 진행됐다.

교육방법은 강의 및 체험교육이 병행돼 ▲모형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활용한 실습 및 이론교육 ▲자전거 이용 등학교 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음주고급 체험교육 ▲안전벨트체험 ▲경찰 싸이가 및

경찰차 체험 ▲소방차 체험 및 재난대피모의 훈련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에 진행된 효광중학교 교통안전교육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어린이안전학교, 녹색어머니회, 도로공사, 서부경찰서, 소방학교, 서구청 등의 협업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수능이후 광주지역 교고를 방문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상반기까지 물 부족 없을 것"

40년 만의 전국적인 가뭄으로 충남 일부 지역이 제한 급수를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기준 광주시 주 상수원인 동복수원지 저수량은 7723만9000㎥(저수율 84%)이고, 주압다목적댐 저수량은 1억6017만9000㎥(저수율 35%)로 광주

시민 9월 하루 평균사용량 49만6000㎥을 고려할 때, 내년 6월까지 생활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대비해 '식·용수 분야 현장조직 행동매뉴얼 가뭄대응방안'에 따라 동복수원지 저수량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시 동구가 최근 보건복지부 선정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동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과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구를 비롯한 전국 22개 시·군·구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난 7월1일 맞춤형 급여 제도개편 이후 동구에서는 1014세대 2207명이 신청해 이중 537세대가 새롭게 기초생활보

장 수급권자로 지정됐다.

이는 제도 개편 전인 지난 6월 대비 일반수급자 3222세대에 비해 16.7%가 증가한 수치로 10월 분 생계급여 지급자는 9.8%, 지급액도 2억900만원 늘었다.

동구는 제도개편 2개월 전부터 기존 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제외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또 TF팀을 구성해 13개동 순회설명회 등을 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담문의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18억이상 재대출 가능)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01호,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포함) (1년후 5억이상 재대출 가능)

경매투자

-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